

원 저

『醫門寶鑑』에 收錄된 醫案에 대한 研究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the Medical Records in the Euimunbogam

Jeong-Sok Oh, Ki-Tae Ha, June-Ki Kim, Dall-Yeong Choi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In China, there are many books of medical record since Mingaileian(名醫類案) which was written by Guan Jiang(江灌) and Ying-Xiu Jiang(江應宿) in 1552.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are few medical records and the study of them is not widespre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moting the study on the Korean medical records by the investigation on the medical records in the Euimunbogam(醫門寶鑑) which was written by Myoung-Shin Zhu(周命新) in 1724. The book is composed of 263 medical records. Among them, 215 records are quoted from Chinese medical books and 48 records are original. There are some quoted books which were written after Dongeubogam(東醫寶鑑), such as Shoushibaoyuan(壽世保元), Zhingyuequanshu(景岳全書) etc. (J Korean Oriental Med 2000;20(4):29-38)

Keywords : Medical Record(醫案), Euimunbogam(醫門寶鑑), Myoung-Shin Zhu(周命新)

緒 論

脈案, 方案, 診籍, 病案이라고도 하는 醫案은 역사적 유래가 대단히 깊어서 『史記』 「扁鵲倉公傳」에 수록된 淳于意의 診籍¹⁾에서 시작된다. 또한 韓醫學의 最古 古典의 하나인 『傷寒論』도 실질적으로는 醫案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므로²⁾ 醫案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中國에서는 明代의 『名醫類案』 이후 여러 專門의 醫案書籍이 출판되었으며 1959년 편찬된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에 따르면 醫案과 關聯된 著

作은 288종이나 된다고 한다³⁾. 그러나 韓國에서는 현재까지 專門의 醫案書籍이 출간된 적이 없으며, 醫案의 수집과 정리 및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朝鮮後期에 출판된 實證의 醫書⁴⁾인 『醫門寶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醫案에 대해 研究함으로써 앞으로 醫案에 대한 理解와 教育에 도움이 되 고자 하였다.

本 論

1. 우리나라 醫案의 歷史

醫案의 歷史는 淳于意의 診籍에서부터 시작되지만, 醫學著述과 教育에 있어서 醫案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宋代에 이르러서이다⁵⁾. 특히 宋代에는 許

· 접수 : 2000년 2월 10일 · 수정 : 3월 17일 · 채택 : 3월 27일
· 교신저자 : 최달영,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T. 0561-770-2650)

叔微의 『普濟本事方』과 錢乙의 『小兒藥證直訣』⁶⁾에 醫案이 수록되었는데, 이것을 醫案을 대량으로 수록한 醫書의 효시로 보고 있다⁷⁾. 明代에 이르러 최초의 醫案 전문서적인 江灌·江應宿父子의 『名醫類案』이 나타났으며⁸⁾, 清代의 醫案書籍으로는 葉天士의 『臨證指南醫案』, 徐大椿의 『回溪醫案』, 柳寶治의 『柳選四家醫案』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醫案書籍은 후대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醫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高麗時代 以前에 醫案을 수록한 醫書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高麗時代에는 宋 및 元과의 醫學交流가 비교적 활발했다는 것⁹⁾과 中國과의 醫學交流가 아직 활발하지 않던 朝鮮初의 『醫方類聚』에 金元四大家의 醫書가 인용된 것¹⁰⁾을 생각할 때 高麗時代에 이미 醫案을 수록한 醫書가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朝鮮前期에는 世宗 때의 『醫方類聚』에서 中國醫書의 醫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醫案을 수록한 최초의 醫書로 추정된다. 특히 『醫方類聚』는 引用書籍이 주로 金元 이전의 것이 많은데¹¹⁾ 宋代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¹²⁾이나 金代 張從政의 『儒門事親』¹³⁾ 등 宋·金元代 醫書에 수록된 醫案을 많이 인용하였다.

그 후 燕山君 때 李宗準이 지은 『神仙太乙紫金丹』에서 自身이 紫金丹으로 치료한 經驗例 8개를 卷末에 수록하고 있는데¹⁴⁾ 이것이 우리나라 醫案의 효시로 생각된다. 이 책은 燕山君 4년(1498년)에 戊午士禍에 연루되어 죽은 李宗準이 弘治 丁巳(1497년)에 저술한 1권의 醫書로¹⁵⁾ 一名 紫金錠, 萬病解毒丹, 玉樞丹 등으로 불리는 太乙神仙紫金丹의 구성과 개별 약물에 관하여 서술하고 著者の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醫案의 수가 적으며 紫金丹 한 처방만을 사용한 治驗이므로 본격적인 醫案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朝鮮後期에 이르러서는 光海君 때 許浚의 『東醫寶鑑』에는 모두 181개의 醫案을 수록하고 있으며¹⁶⁾, 주로 金元四大家와 明代 醫家의 醫案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다¹⁷⁾. 그러나 『東醫寶鑑』은 醫案을 따로 구분

하여 수록하지 않고 있으며, 醫論 및 處方과 醫案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編制는 醫案을 따로 구분하여 수록한 中國醫書나 『醫門寶鑑』에 비하여 醫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후 景宗 때 周命新의 『醫門寶鑑』에서 諸家의 醫案과 자신의 경험을 수록하고 있는데¹⁸⁾, 이 책의 특징은 醫案을 醫論 및 處方과 분리하여 따로 「經驗」에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周命新 자신의 醫案이 48종이나 되고 病證도 內科, 婦人科, 小兒科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韓國醫案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高宗 때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도 前人의 經驗方 및 自身의 治療經驗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¹⁹⁾. 『東醫壽世保元』에서 “嘗治…” 혹은 “嘗見……”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모두 醫案으로 볼 수 있으며 醫案의 수는 泛論이 훨씬 많지만 醫學의 인 價値가 높은 것은 泛論보다는 本論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출판된 『晴崗醫鑑』은 舊韓末 晴崗 金永勳 선생의 처방전을 정리한 醫書로 本方 아래에 ‘應用方例’라는 항목을 두어 간단한 醫案을 수록하고 있다²⁰⁾. 醫案이 너무 소략한 면이 있지만 醫案의 수가 대단히 많고 병증도 다양하여 醫案研究에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2. 周命新과 『醫門寶鑑』에 대하여

『醫門寶鑑』은 모두 8권본으로 景宗 4년인 1724년에 岐下 周命新이 저술한 것으로, 高宗 때의 內醫였던 李命錫이 교정하여 1918년 서울의 滙東書館에서 鉛活字本으로 간행한 것이다²¹⁾. 著者인 周命新에 대해서 三木榮의 『朝鮮醫書志』에는 “號가 岐下이며 尙州 사람으로 英祖때의 醫人이며 許浚의 後學으로 명성이 높았다”²²⁾고 기록하고 있으며, 生沒年代나 家系, 학문적 배경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醫科에 응시하였거나 內醫로 奉職한 기록이 없으므로²³⁾ 전문적인 醫人이 아니라 儒醫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序文에 따르면 장년시절부터 『東醫寶鑑』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상사를 벗

어나 수십 년간 전력을 소비하여²⁴⁾ 『醫門寶鑑』을 저술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醫學을 공부하였고 醫學에 뜻을 두었을 때부터 『東醫寶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다. 또 醫案 중에는 自身이 30세였을 때 虛勞病을 앓은 治驗例가 있는데²⁵⁾ 이를 통하여 그가 최소한 30세 이전에는 醫學 經驗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醫門寶鑑』의 篇次는 朝鮮後期에 출판된 다른 醫書들이 대부분 『東醫寶鑑』을 따르고 있는데 비하여, 「中風門」으로 시작하는 전통적인 雜病的 체계²⁶⁾를 따르고 있다. 또 凡例에서 李命錫이 周氏舊本에는 用藥門을 따로 설정하여 같은 類의 諸方을 篇末에 附記하였다²⁷⁾고 하였는데, 이것은 『東醫寶鑑』의 편차와는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版本은 李命錫이 『東醫寶鑑』의 편차에 따라 처방을 어떤병 어떤 증세 밑에 옮겨쓴 것²⁸⁾으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내용에 있어서는 『東醫寶鑑』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東醫寶鑑』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序文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陽平君 許公께서 고금의 의방을 찬집하여 『東醫寶鑑』을 지으셔서 여러 先賢들의 醫書를 거의 집대성하셨다. 그러나 그 책을 살펴보면 권질은 매우 많고 중복된 말이 많으며, 상세한 곳은 매우 상세하나 소략한 곳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흠으로 여겨왔다.”²⁹⁾ 라고 하였다.

그리고 引用하고 있는 醫書에 있어서도 『東醫寶鑑』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凡例를 살펴보면 脈訣은 李時珍의 이론을 따랐으며³⁰⁾, 藥性歌는 龔廷賢의 歌訣³¹⁾을 수록하고 다시 『本草綱目』³²⁾의 요점을 기록하였다³³⁾고 하였다. 龔廷賢의 『壽世保元』³⁴⁾과 李時珍의 『本草綱目』은 모두 『東醫寶鑑』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책으로 『東醫寶鑑』에서는 인용되지 않고 『醫門寶鑑』에만 인용되어 있다. 引用書目에서도 『東醫寶鑑』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위에 언급한 『壽世保元』, 『本草綱目』 이외에도 『醫學統旨』³⁵⁾, 『景岳全書』³⁶⁾ 등의 서적이 기록되어 있다³⁷⁾. 이것은 『東醫寶鑑』은 戰亂 중에 편찬되었으므로 醫書의 수입이 곤란하였

으나 『醫門寶鑑』은 肅宗에서 正祖로 이어지는 朝鮮後期の 중흥기에 저술된 것으로 中國과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여 새로운 醫書의 입수가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金斗鍾은 『韓國醫學史』에서 이 책이 당시의 實證의 학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는데³⁸⁾ 이러한 평가는 이 책이 篇次에 있어서 『東醫寶鑑』을 따르지 않은 것과 各門의 末尾에 여러 醫家와 자신의 醫案을 수록한 것과도 잘 부합이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醫門寶鑑』은 周命新이 1724년에 尙州에서 저술한 醫書로 『東醫寶鑑』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最初의 醫書였으며, 『東醫寶鑑』 이후에 출판된 中國 醫書를 수용하고 자신의 經驗을 기록하여 實用性和 實證性에 기초를 두고 저술된 醫書로 볼 수 있다.

3. 『醫門寶鑑』에 수록된 醫案에 대한 分析

周命新은 『醫門寶鑑』에서 한 편의 끝부분마다 經驗이란 항목을 두어 古今의 醫案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醫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篇次는 醫案을 따로 구분하여 수록하지 않고 處方이나 醫論과 混在된 『東醫寶鑑』 등 이전의 醫書에 비하여 醫案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편차에 있어서도 『東醫寶鑑』의 內景, 外形, 雜病的 篇次를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雜病的 편집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은 『壽世保元』, 『景岳全書』 등 明代 中國醫書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록된 醫案은 모두 263개이며, 이 중에서 中國醫書에 인용된 것은 215개였으며 周命新 자신의 醫案이 48개였다. 各門에 수록된 醫家別 醫案의 數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醫門寶鑑』 各門別로 收錄된 醫案의 醫家別 統計

篇名	張從正	丹溪	虞搏	龔庭賢	景岳	薛己	其他	周命新	計
中風	1	1	3				許胤宗 1 王克明 1	1	7
傷寒	2	3	2	1				4	12
中寒							一道人 1	1	1
沈寒痼冷								1	1
暑證	2	3						2	7
濕證							孫思邈 1	1	1
燥證			1					1	1
火證	1	1						2	2
積熱	1							2	3
內傷	2	1	2				李時珍 1	6	6
調理脾胃								2	2
氣病				1				1	1
吐血嘔血				3				3	3
衄血	1*		2*					3	3
咳嗽咯血	2							2	2
溺血								1	1
便血	2	1	2					5	5
痰飲			1	3				4	4
鬱證	2	1						3	3
虛損	2		1				羅太無 1	2	6
傷食	1		5					6	6
霍亂								1	1
吞酸	1		1					1	3
痞滿			1	1				2	4
積聚	2		1					3	3
嘔吐			1	1				1	3
說膈	3							3	3
糟雜			1					1	1
咳嗽	1		2					3	3
哮喘			3					3	3
黃疸			1				朱肱 1	2	2
水腫			1	2				2	5
鼓脹	2			2			羅太無 1 項昕 1	1	8
赤白濁	1		1					1	3
癲狂			1					2	3
癩病	1		1					2	2
驚悸怔忡	1						呂復 1	1	3
健忘							滑壽 1	1	1

篇名	張從正	丹溪	虞搏	龔庭賢	景岳	薛己	其他	周命新	計
瘧病		1							1
眩暈				2				1	3
頭痛				4					4
頭風								1	1
面病							羅太無 1 孫公 1		2
眼病		1		2			錢乙 1 呂復 1		5
耳病				1					1
鼻病		1		1					2
口病				2					2
舌病				4			周眞 1		5
唇病								1	1
牙齒				2					2
咽喉				2	1				3
聲音		3							3
痛風		1		2					3
痺風								1	1
心痛			1	2				1	4
腹痛		1		1					2
背痛		2							2
臂痛				1					1
腰痛				1	1				2
脇痛			1	1			項昕 1		3
脚氣				2	1				3
疝氣	1	1		1			1		4
泄瀉			1	1					2
痢疾		5	1						7
謔疾				1			무명 1		2
隆閉				3					4
遺溺								1	1
淋疾		1							1
夢遺				2					2
秘結			2	2					4
消渴				2	1				3
食厄逆								1	1
關格									
厥逆							陳景魁 1		1
萎病				1			李東垣 1		2
發熱		1		2					3

篇名	張從正	丹溪	虞搏	龔庭賢	景岳	薛己	其他	周命新	計
惡寒	1	1							2
虛煩							滑壽 1		1
昏睡不睡	1	1							2
夢	1								1
汗				1				1	2
脫肛				1					1
痔漏				1					1
蟲證	1						孫兆 1	1	3
勞瘵		1					一異人 1		2
癩疹		1							1
麻疹								2	2
婦人									
經候				1					1
崩漏								1	1
帶下				1					1
求嗣								1	1
妊娠				1				2	3
臨產								1	1
產後				2					2
小兒									
初誕									
護養									
壽夭									
察色									
察脈									
變蒸									
諸風							1	1	1
諸驚				1					1
驚癇		1		1					2
諸疳						1			1
積癖						1			1
吐瀉					1				1
龜胸龜背						1			1
五軟五硬						1			1
諸熱						1			1
痘疹						1	錢英 1 錢乙 1		3
外科								1	1
蟲瘻									
邪疔									

篇名	張從正	丹溪	虞搏	龔庭賢	景岳	薛己	其他	周命新	計
解毒									
怪疾									
五臟六腑									
運氣									
觀形察色									
奇經八脈									
脈訣									
十二經脈歌									
經穴撮要歌括									
藥性									
總計	7	52	22	94	9	6	25	48	263
비율(%)	2.7	19.8	8.4	35.7	3.4	2.3	9.5	18.2	100

그림 1에서 보듯이 『醫門寶鑑』에 수록된 醫案 263首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龔庭賢의 醫案인데, 총 94개로 전체의 35.7%에 해당한다.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는 '龔信古今醫鑑', '龔信萬病回春', '龔信種杏仙方' 및 '壽世保元'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古今醫鑑』을 제외한 나머지 서적은 모두 廷賢의 著述이며³⁹⁾, 이러한 실수는 『東醫寶鑑』의 引用書目에서 『萬病回春』을 龔信의 著作으로 수록하고 信의 字를 廷賢이라고 한 것⁴⁰⁾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醫門寶鑑』에서 인용하고 있는 廷賢의 醫案 가운데 『萬病回春』에 수록된 것은 33개⁴¹⁾이고, 『壽世保元』에서 수록된 것은 61개이다⁴²⁾.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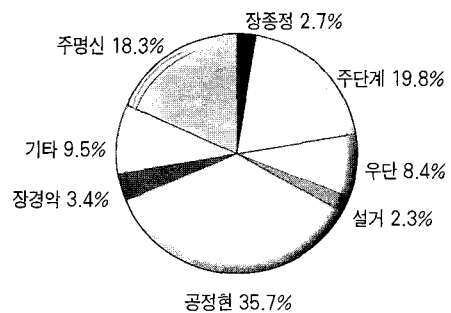


Fig. 1. 『醫門寶鑑』에 인용된 醫案의 醫家別 比較

두 책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것은 3개⁴³⁾이며 출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3개이다. 또 특이할 것은 『東醫寶鑑』에도 『萬病回春』의 醫案이 수록되어 있으나⁴⁴⁾ 이 중에서 『醫門寶鑑』에서 再引用하고 있는 醫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朱丹溪의 醫案으로 52개의 醫案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의 19.8%에 해당한다.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는 『朱震亨丹溪心法』, 『方廣丹溪心法附餘』, 『丹溪幼科心法』 등이 기록되어 있다⁴⁵⁾. 그러나 『醫門寶鑑』에 수록된 醫案의 출전을 확인한 결과 『丹溪心法』에서 직접 인용된 醫案은 하나도 없었으며, 46개의 醫案이 『丹溪先生醫書纂要』에서 인용되고 있었다⁴⁶⁾. 또한 『東醫寶鑑』을 통하여 재인용된 醫案이 8개⁴⁷⁾인데, 그 중에서 2개는 『丹溪纂要』에도 수록되어 있었다⁴⁸⁾. 그리고 1개의 醫案은 廷賢의 『壽世保元』에 수록된 醫案인데⁴⁹⁾ 朱丹溪의 醫案으로 잘못 인용한 경우였다. 『丹溪纂要』는 明代 盧和가 撰한 書籍으로 朝鮮中期에 이미 우리나라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으나⁵⁰⁾,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東醫寶鑑』에서도 『丹溪纂要』를 인용하였지만⁵¹⁾, 引用書目에는 『丹溪心法』과 『丹溪心法附餘』만 나타나고 『丹溪纂要』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醫門寶鑑』에서 『丹溪纂要』의 醫案을 인용했으면서도 引用書目에는 수록하지 않은 것은 朝鮮後期 醫家들이 『丹溪纂要』와 『丹溪心法』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번째로는 周命新 자신의 醫案이 총 48개로 전체의 1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醫案들은 모두 筆者를 余 또는 餘⁵²⁾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醫案에서는 대부분 筆者의 성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周命新 자신도 序文에서 “古今의 醫案과 내가 경험한 것을 말미에 붙여두었다.”⁵³⁾라고 하여 분명히 자기의 醫案을 신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醫案의 著者를 餘 또는 余라고 표기한 48개의 醫案은 周命新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醫案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번째로 많은 것은 虞博의 醫案인데 모두 25개로 전체의 8.7%에 해당한다. 출전은 『醫學正傳』인데 이

책이 『東醫寶鑑』에도 인용되어 있지만⁵⁴⁾ 인용된 醫案 가운데 『東醫寶鑑』에 수록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책이 朝鮮時代に 널리 유포되었다⁵⁵⁾는 것과 『醫學正傳』이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 수록된 것⁵⁶⁾을 볼 때 『醫學正傳』의 醫案을 직접 인용한 것⁵⁷⁾으로 보인다.

다섯째는 張景岳의 醫案인데 모두 9개를 인용하고 있으며 전체의 3.4%에 해당한다. 『醫門寶鑑』은 『景岳全書』를 인용한 최초의 韓國醫書이며⁵⁸⁾, 『景岳全書』의 初版本인 魯本이 1700년에 출판된 것을 생각할 때 張景岳의 醫案은 『景岳全書』에서 직접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번째는 張從正的 醫案인데 모두 7개를 인용하고 있으며, 전체의 2.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東醫寶鑑』에 수록된 醫案이 4개이며⁵⁹⁾ 나머지 3개는 『儒門事親』에서 직접 인용된 것⁶⁰⁾으로 보인다.

일곱번째로 薛己의 醫案으로 모두 6개가 인용되어 있으며 전체의 2.3%에 해당한다. 薛己의 대표작은 『薛氏醫案』이지만 이 책은 단일한 한 권의 著述이 아니라 여러 책을 모은 것으로, 그 중에는 薛己 자신의 著述과 校注한 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는 薛己가 저술한 『外科樞要』와 校注한 책인 王節齋의 『明醫雜著』, 『錢乙小兒眞訣』⁶¹⁾, 『陳自明婦人良方』, 『婦人大全良方』⁶²⁾ 등이 수록되어 있다⁶³⁾. 이외에 薛己의 小兒科 著述로 『保嬰撮要』가 있으나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는 존재하지 않는다⁶⁴⁾. 薛己의 醫案은 주로 小兒門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는 『薛氏醫案』 중에 포함된 『小兒藥證直訣』 校注本에 수록되어 있으며⁶⁵⁾, 나머지 醫案은 『薛氏醫案』에 수록된 다른 小兒科 書籍인 『保嬰撮要』에 수록되어 있다⁶⁶⁾. 이 외에도 『保嬰撮要』의 痘疹門에는 『醫門寶鑑』에서 錢暎, 錢乙의 醫案으로 인용된 두 개의 醫案도 수록되어 있다⁶⁷⁾. 따라서 周命新이 『醫門寶鑑』에 수록된 薛己의 醫案을 어느 책에서 인용했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東醫寶鑑』이 아닌 中國醫書에서 인용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醫家の 醫案은 2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羅太無⁶⁸⁾의 醫案은 3개가 인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醫案은 『醫學綱目』에 실

린 것을 『東醫寶鑑』을 통해 再引用된 것⁶⁹⁾으로 보이며, 나머지 1개는 『醫學綱目』에서 직접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2개의 醫案이 인용된 醫家로는 錢乙, 滑壽, 呂復⁷⁰⁾, 項昕⁷¹⁾, 孫兆⁷²⁾가 있다. 그 중에서 錢乙의 醫案⁷³⁾은 『東醫寶鑑』이나 『醫學入門』⁷⁴⁾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또한 『小兒藥證直訣』「中卷」에도 수록되지 않았다⁷⁵⁾. 따라서 周命新이 이 醫案들을 어느 책을 통하여 引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滑壽의 醫案은 모두 『醫學入門』에 수록되어 있으며⁷⁶⁾ 『東醫寶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醫學入門』에서 직접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呂復의 醫案은 모두 『醫學入門』에 수록되어 있는데⁷⁷⁾ 그 중 1개는 『東醫寶鑑』을 통하여 再引用된 것으로 생각된다⁷⁸⁾. 項昕의 醫案도 모두 『醫學入門』에 수록된 것⁷⁹⁾으로 그 중 1개는 『東醫寶鑑』을 통하여 再引用된 것으로 보인다. 孫兆의 醫案은 2개 모두 『東醫寶鑑』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再引用된 것으로 생각된다.

1개의 醫案이 인용된 醫家は 許胤宗⁸²⁾, 錢暎⁸³⁾, 王克明⁸⁴⁾, 孫思邈, 李時珍, 朱肱, 李東垣, 周眞⁸⁵⁾, 陳景魁⁸⁶⁾ 등이 있다. 그 가운데 許胤宗과 王克明의 醫案은 『景岳全書』「雜證謨·非風」에 수록된 것⁸⁷⁾을 再引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許胤宗이 黃耆防風湯 蒸蒸法으로 唐太后를 치료한 醫案은 『東醫寶鑑』에도 인용되어 있지만⁸⁸⁾ 『醫門寶鑑』과 『景岳全書』에 수록된 醫案에는 있는 「脈沈欲脫」 등 일부 내용이 빠져 있다. 그 외에 朱肱, 李東垣, 周眞의 醫案은 『東醫寶鑑』에도 수록되어 있으므로⁸⁹⁾ 이를 통해서 再引用된 것으로 보인다. 陳景魁의 醫案은 『醫學入門』에 수록되어 있으나⁹⁰⁾ 『東醫寶鑑』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醫學入門』을 통하여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李時珍의 醫案은 『本草綱目』에 수록된 것⁹¹⁾으로 『東醫寶鑑』이나 『醫學入門』 등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또한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 『神農本草綱目』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本草綱目』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李時珍의 醫案은 『本草綱目』에서 직접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錢暎, 孫思邈의 醫案은 『東醫寶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로 다른 中國醫書を 통해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錢暎은 著述한 醫書가 모두 佚失되었으므로 다른 醫書を 통하여 재인용된 것으로 보이며, 孫思邈은 『孫真人千金方』이 『醫門寶鑑』의 引用書目에 수록되어 있으므로⁹²⁾ 『千金方』에서 직접 인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 無名의 醫家가 3명인데 一道人이나 一異人으로 표기된 醫案이 각각 1개였으며, 醫師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醫案도 1개가 있었다. 그 가운데 一道人의 醫案은 『東醫寶鑑』에서 『醫方類聚』에 수록된 醫案을 再引用한 것이며⁹⁴⁾, 一異人의 醫案은 『得效方』의 醫案을 『東醫寶鑑』을 통해 再引用한 것이며⁹⁵⁾, 醫師의 이름이 없는 醫案⁹⁶⁾은 『東醫寶鑑』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醫書에서 인용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出典을 찾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醫門寶鑑』에 인용된 醫案의 原出典을 조사한 결과를 그림 2에서 나타내었는데, 『東醫寶鑑』에서 재인용된 것은 모두 19개로 『醫門寶鑑』 전체 醫案의 7.2%에 불과하며 周命新 자신의 醫案이 18.3%이고 中國醫書에서 직접 인용된 醫案이 74.5%에 해당하였다. 또한 中國醫書에서 引用한 醫案 중에서도 『景岳全書』, 『壽世保元』 등 『東醫寶鑑』 이후에 출판된 醫書의 醫案을 상당수 인용하고 있었으며, 丹溪나 龔廷賢과 같이 『東醫寶鑑』에도 醫案이 引用되어 있는 醫家의 경우에서도 『東醫寶鑑』을 통한 再引用보다는 原書를 통한 직접 인용의 경우가 더 많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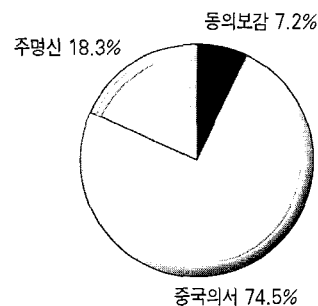


Fig. 2. 『醫門寶鑑』에 인용된 醫案의 出典. 동일한 醫案이 『東醫寶鑑』과 中國醫書에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는 『東醫寶鑑』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았음.

다. 이것은 朝鮮後期 醫學을 『東醫寶鑑』의 縮小指向的 再編輯의 時代로 이해하는 見解⁷⁾와는 相反되는 것으로 『醫門寶鑑』이 저술되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에 中國醫書의 수입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證據로 볼수 있다.

結 論

이상과 같이 『醫門寶鑑』에 수록된 醫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 『醫門寶鑑』은 『東醫寶鑑』을 수용하면서도 그 부족한 점을 비판하였으며, 『東醫寶鑑』 이후에 출판된 中國 醫書를 수용하고 자신의 經驗을 기록하여 實用性和 實證性에 기초를 두고 저술된 醫書이다.
2. 『醫門寶鑑』에 기록된 醫案은 총 263개이며, 그중 中國 醫書에서 引用한 것이 215개이며 자신의 經驗을 기록한 醫案은 48개였다.
3. 中國 醫書에서 引用한 醫案은 龔廷賢 94개, 朱丹溪 52개, 虞搏 22개, 張景岳 9개, 張子和 7개, 薛己 6개, 기타 25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4. 中國 醫書에서 引用한 醫案은 『東醫寶鑑』을 통한 再引用보다는 原書를 통한 直接引用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수록된 醫案 가운데는 『壽世保元』, 『景岳全書』 등 『東醫寶鑑』 이후의 책에서 인용된 醫案이 많이 있었다.

參考文獻

1. 張笑平 主編. 中醫病案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5: 9.
2. 施杞, 蕭敏材 主編. 中醫病案學. 上海: 中國大百科出版社上海分社. 1994: 140~141.
3. 張笑平: 상계서. 2.
4. 김두중. 韓國醫學史. 서울: 探究堂. 1966: 336.
5. 宋代 醫科 科目 中에서 '假令' 一項은 醫案에 대한 시험이었다. (홍원식.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92: 139.)
6. 『小兒藥證直訣』 卷中の 「記嘗所治病二十三證」에 醫案을 수록하고 있다. (錢乙. 小兒藥證直訣. 北京: 人民

- 衛生出版社. 1991: 39~53.)
7. 黃煌. 醫案助讀.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88: 5.
8. 黃煌: 상계서. 5~6.
9. 김두중: 상계서. 118.
10. 引用된 金元四大家의 醫書로는 張子和의 『儒門事親』, 『六法三門』, 劉河間의 『傷寒直格』, 『素問玄機原病式』, 李東垣의 『東垣試效方』, 『東垣內外傷辨』, 『蘭室秘藏』, 『脾胃論』, 朱丹溪의 『格致餘論』, 『局方發揮』 등이 있다. (김신근.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94~95.)
11. 醫方類聚의 引用書目에 의하면 대부분의 引用書籍이 宋·金·元대의 것이며, 明代의 醫書는 劉純의 『醫經小學』 정도가 있다.
12. 『醫方類聚』 「風門」에서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의 醫案을 引用하고 있다. (盧重禮 外. 醫方類聚(第2冊). 서울: 麗江出版社. 26~29.)
13. 『醫方類聚』 「風門·指風痺 厥近世差互說」에 수록된 『儒門事親』의 내용 속에 醫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盧重禮 外. 상계서. 32~38.)
14. 安秉禧: 《神仙太乙紫金丹》解題. 서울: 韓國書誌學會. 季刊書誌學報 6: 163~165.
15.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佚失되고 日本의 德川時代의 寫本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誠庵古書博物館에서 原刊本을 所藏하여 『季刊書誌學報』에 安秉禧의 解題와 함께 原文의 影印本이 收錄되었다. (安秉禧: 상계서. 155~160.)
16.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8: 84.
17. 張子和, 李東垣, 朱丹溪, 『醫學綱目』의 醫案이 비교적 많고, 그 외에도 『本事方』, 『經驗方』, 錢乙, 『入門』, 『醫學正傳』 등의 醫案이 인용되어 있다.
18. 김두중: 상계서. 337.
19. 송일병 外.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150~151.
20. 金永勳 著, 李鐘聲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95.
21.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99.
22. 三木榮. 朝鮮醫書志.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昭和48: 121.
23.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山精版印刷株式會社(自家出版). 昭和38年(1963年). 217.
24. 余於壯年有志於斯脫略世事經營數十載勞神費精…… (周命新. 醫門寶鑑.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出版部. 1987: 1.)
25. 周命新: 상계서. 110.
26. 대개 中風이 첫머리에 오며, 그 뒤 風寒暑濕燥火의 外感六氣와 飲食傷, 鬱證, 痰飲, 咳嗽 등의 內傷病의 순서로 內科가 먼저 수록되며, 婦人, 小兒, 外科의 순서로 편제가 정해진다. 『丹溪心法』, 『壽世保元』, 『景

- 岳全書』 등 대부분의 종합의서는 이러한 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27. 김신근. 상계서. 335
 28. 김신근. 상계서. 335
 29. 我東楊平郡許公纂集古今醫方, 著爲『東醫寶鑑』, 庶幾集群賢之大成. 而顧其爲書帙固汗漫, 語多重複, 詳者甚詳, 略者甚略, 世之以是病之. (周命新, 醫門寶鑑·序文,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出版部. 1987: 1.)
 30. 脈訣概尊瀕湖所論…… (김신근: 상계서. 384) 李時珍의 『瀕湖脈學』을 參考한 것으로 생각된다.
 31. 雲林은 龔廷賢의 號인데 引用書目에서 『萬病回春』은 信의 저작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壽世保元』에 실린 藥性歌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는 『醫門寶鑑』의 「藥性」에는 龔廷賢의 藥性歌와는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2. 李時珍이 죽은 후 3년인 1596년 刊行되었다. (洪元植: 상계서. 252)
 33. 藥性雲林歌訣便於記誦故今從其制而更取綱目要意添的損益焉. (김신근: 上揭書. 335)
 34. 龔廷賢의 著作으로 서문에 기록된 연대는 萬曆43년 (1615년)이다. (龔廷賢: 壽世保元·自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35. 明代 葉文齡이 撰한 것으로 1534년에 간행되었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p.230)
 36. 明代 張景岳의 저작으로 대략 1637년 경에 완성되었으며, 초판은 1700년에 출간되었다. (張景岳 著, 趙立勛 主校: 景岳全書·校點說明,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4.)
 37. 崔秀漢: 상계서. 101~102. 『東醫寶鑑』과 『醫門寶鑑』의 引用書目的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8. 김두중. 상계서. 337.
 39.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16.
 40. 許浚: 상계서. 71.
 41. 龔廷賢.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69,70,85,108,124,126,148,206,218,222,224,252,255,260,271,273, 280,287,307,318,323, 342,357,371.
 42. 龔廷賢. 壽世保元. 78,127,140,148, 149,158,163, 166,169,175,185,206,211,213,224,231,275,288,291,297,305,308,322,333,337,344,351,355,358,373,376, 383,386,387,395,399,401,416,427,431,434,435,441,451,463,587.
 43. 龔廷賢. 萬病回春. 224,287,271,280. 龔廷賢: 壽世保元. 322,451,430,441.
 44. 모두 8개의 『萬病回春』 醫案이 인용되어 있다. (許浚. 상계서. 179,225,253,308,406, 528,584,651.)
 45. 崔秀漢: 상계서. 101~102.
 46. 盧和. 丹溪先生醫書纂要·金元四大家醫書全集(下).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4: pp.1217,1256, 1258,1262,1264,1266,1267,1271,1277,1278,1279,1283,1286,1289,1290,1291,1296,1301,1303,1305,1306,1307,1309,1311,1312,1316,1697,1698.
 47. 許浚: 상계서. 102,117,179,238,261,315,423.
 48. 盧和: 상계서. 1267,1301.
 49. 龔廷賢. 壽世保元. 291.
 50. 宣祖 18년(1585년)에 간행된 『攷事撮要』에 醴泉에서 출판되었다는 기록이 있다.(崔秀漢: 상계서. 227~228.) 또한 三木榮은 『朝鮮醫書志』에서 이 책의 朝鮮內 初版인 醴泉版을 嘉靖24 乙巳年(1545년)으로 보고, 重版인 慶州版을 刊記에 기록된 壬午년에 근거하여 印趾왜란 이후인 仁朝 20년(1702년)으로 보고 있다. (三木榮: 상계서. 225~227.)
 51. 『雜病篇·痰喘』에서 千緝湯을 인용하고 있다. (許浚: 상계서. 475.)
 52. 余의 誤字로 생각된다.
 53. 又以古今醫案及己所經驗者, 尾附於下. (周命新: 상계서. 1.)
 54. 許浚. 상계서. 199,373.
 55. 崔秀漢. 상계서. 228~229.
 56. 崔秀漢. 상계서. 101.
 57. 虞搏. 상계서. 35,51,52,58,70,79,85,87,94, 115,122, 140,147,184,197,255,290,294,298,299.
 58.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景岳全書가 朝鮮後期 韓國醫學에 미친 影響에 대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20(2):15, 1999.
 59. 許浚. 상계서. 97,117,165,423.
 60. 張從正. 儒門事親校注.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372,383,402.
 61.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을 말하는 것으로 1985년 中華書局에서 출판한 叢書集成初編에 『小兒藥證眞訣』이란 서명이 있다. (錢乙. 小兒藥證眞訣. 叢書集成初編, 北京. 中華書局. 1985) 또한 薛己가 校注하고 醫案을 附記한 것을 『校注小兒藥證直訣』이라고 하고 薛己의 醫案이 수록되어 있는데, 『醫門寶鑑』에서 인용한 책이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알수 없다.
 62. 『婦人大全良方』은 陳自明이 저술한 책으로 『婦人大全良方』, 『婦人良方大全』 등으로도 불린다. 『陳自明婦人良方』과 『婦人大全良方』이 모두 동일한 書物의 異名이라면 별도로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두 책 가운데 하나는 『校注婦人良方』으로 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3. 崔秀漢. 상계서. 101.
 64. 崔秀漢. 상계서. 101.
 65. 薛己. 薛氏醫案·小兒藥證直訣. 北京: 中國中醫藥出

- 版社. 1997: 643.
66. 薛己. 薛氏醫案·保命撮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403,421,424,428,577.
67. 薛己. 상계서. 575,579.
68. 元代の 醫家人 羅知悌를 말한다. 浙江人으로 號가 太無였으며 劉完素의 제자로 劉氏와 張從正, 李東垣의 학설을 종합하여 弟子인 朱震亨에게 전하였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32.)
69. 許浚. 상계서. 210,504.
70. 明代의 醫家로 浙江省 寧波人으로 『內經或問』, 『靈樞經脈箋』을 저술했으나 모두 佚失되었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158.)
71. 元代(14세기)의 醫學家로 字는 彥章이며, 李의 『脾胃論』을 보충하여 『脾胃後論』을 撰하였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331.)
72. 北宋(11세기)의 醫家로 尙藥奉御 孫用和의 아들로 進士에 급제하여 殿中丞에까지 벼슬이 올랐다. 『傷寒方』, 『傷寒脈訣』을 저술하였으며, 林億과 高保衡이 校注한 『黃帝內經素問』을 修訂하여 『重光補注黃帝內經素問』이라 名하였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132.)
73. 『醫門寶鑑』「眼病·內障」에 一乳婦가 大怒로 인해 目脹不得瞑한 병이 생긴 것을 靑인 郁李仁酒로 치료한 경험과, 「小兒·痘疹」에 一妊婦가 1개월여 동안 痘疹이 생겨 欲不 하고 面赤 熱한 것을 肝脾血虛에 熱이 있는 것으로 보아 加味逍遙散에 當歸, 白芍藥 등을 투여하여 치료한 醫案이 실려 있다. (周命新: 상계서. 200,411.) 이 중에서 두 번째 醫案은 『薛氏醫案·保撮要』에 수록되어 있다. (薛己. 상계서. 579.)
74. 『醫學入門』「歷代醫學姓氏」篇에는 여러 醫家の 傳記와 함께 醫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錢乙의 醫案은 수록되지 않았다. (李. 醫學入門. 南昌: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8: 16~52.)
75. 錢乙. 상계서. 39~53.
76. 李. 상계서. 23.
77. 李. 상계서. 24.
78. 許浚. 상계서. 594.
79. 李. 상계서. 40.
80. 許浚. 상계서. 283.
81. 許浚. 상계서. 165,210.
82. 隋唐間(대략 540~630)의 名醫로 骨蒸病의 치료에 능하였으며, 疾病의 치료에 있어서 切脈과 議病을 중시하였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334.)
83. 明代(15세기)의 醫家로 字는 良玉이며 蘇州人으로 小兒醫로 유명하다. 宣德年間(1426~1434)에 太醫院에 任職하였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263.)
84. 宋代의 醫家(1069~1135年)로 字는 彥昭이며 浙江省 吳興人으로 科擧에 올라 金에 사신으로 가기도 하였으며, 軍中의 大疫을 치료하여 수만명을 살렸다. 후에 翰林醫局으로 옮겼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177.)
85. 元代(13세기)의 醫家로 眞州 사람이며, 字는 子固, 號는 玉田隱者로 奇病을 잘 고친 것으로 소문이 났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282.)
86. 明代의 醫家로 字는 敬巨이며 號는 斗岩으로, 鍼灸에 능했으며 『五珍集』을 저술하였으나 佚失되었다.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分冊」. 296.)
87. 張介賓. 상계서. 220.
88. 許浚. 상계서. 363.
89. 許浚. 상계서. 243,305,514.
90. 李. 상계서. 29.
91. 李時珍. 本草綱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797.
92. 김신근. 상계서. 387.
93. 김신근. 상계서. 386.
94. 許浚. 상계서. 405.
95. 許浚. 상계서. 167.
96. 周命新. 상계서. 273.
97. 김남일 외. 朝鮮後期の 醫學(韓國韓醫學史再定立. 제 7장). 서울: 한국한의학회연구소. 1995: 7,18.